

“안전은 미리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 ‘제9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시상식 열려

취재 | 임동희기자

소방방재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주최한 제9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시상식이 소방방재청 박연수 차장 등 관련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11일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화재 및 재난 안전과 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이 수록된 학습교재 ‘불조심 길라잡이’와 ‘우리는 안전어린이’를 배포하고, 한 달 간의 자율학습 기간을 거친 뒤 1, 2차례에 걸친 평가시험을 통해 학급별 성적이 우수한 학교를 선발, 표창하는 행사다. 올해에는 486개 학교, 657개 학급에서 20,182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행사 결과, 올해의 대상은 강원도 강릉중앙초등학교 5학년 2반이 차지했다. 이 학급 학생들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소방방재청장 표창과 상금 80만원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에는 강릉중앙초등학교(5학년 2반)와 전북 남원토통초등학교(5학년 4반)가 공동 수상했다.

이밖에 우수상에는 포항제철중초등학교(5학년 2반)를 포함해 4개 학교가 차지했으며, 불조심 어린이상에는 전남 순천남초등학교(5학년 1반) 등 10개 학교가 수상했다. 이들 학급에게는 상금과 함께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표창 등이 수여됐다.

이올려 대상 및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한 7개교 지도교사에게는 지도교사상과 부상이 수여됐다.

대상을 차지한 강릉중앙초등학교 5학년 2반의 담임을 맡고 있는 김명희 선생은 “일상생활에서의 화재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하고 뜻 깊었다.”라며 “그림으로 재미있게 편집된 교재 덕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공부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소방방재청의 박연수 차장은 “오늘 시상을 했던 학생 여러분 및 교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전은 미리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오늘 어린이들이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에게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 한국화재보험협회 제정무 이사장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은 항상 함께 하고 우리의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만 소홀히 하면 한순간에 가족은 물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라며 “어릴 적부터 화재에 대한 안전습관과 행동을 키워나가야 하고, 이를 항상 마음에 새겨서 나 자신은 물론 주변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안전파수꾼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 직후에는 어린이합창단의 축하무대가 이어졌다. 한국119소년소녀합창단은 감쪽한 율동과 함께 ‘화재사고 예방’을 주제로 동요를 불러 참여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울러 이날 수상했던 어린이들은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 오후 2시부터 용산전쟁기념관을 찾아 두 번 다시 전쟁의 참극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는 실천적 결의를 다진 후 한국화재보험측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모두 집으로 향했다.

참고로 1997년부터 시작된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는 올해까지 전국 총 2,553개 학급에서 86,500명의 어린이가 참가했다. 앞으로도 소방방재청과 화재보험협회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참여도를 더욱 확대시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박연수 소방방재청 차장

몇 주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아버지를 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평소 연습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또 모 음식점 화재사고에서는 안에 있던 사람들이 1m 옆에 비상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길 속에서 들어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다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들어갈 때 미리 비상구의 위치만 봐두었다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삶과 죽음의 차이만큼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비상구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놓는 습관도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화재 시에는 생명을 건질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참여했던 어린이 여러분들 모두도 화재 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또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을 실천하게끔 옆에서 관심을 쏟아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해 알고 실천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